

5-17-2026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골로새서 1:13-27

말씀제목: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비와 영광의 소망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 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갈 2:20)

그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자세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태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들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는 모든 충만함이 그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음이며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라.”(골 1:15-20)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고 증거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 1:1-3)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심으로써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은 신비 중에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비 중에 신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은 사도바울처럼 우리들 자신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써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외에 어떤 다른 사람도 교회에 속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과 땅을 친히 창조하셨던 그리스도를 가까이 모시며 살며 그가 받았던 축복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태초로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 생명이 나타나시매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 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요일 1:1-3)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이며,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며 교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진리의 지식을 깨달아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각을 초월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유업을 바라보면서 항상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영광과 혼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을 바라보는 영광의 소망에 대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며 천상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 만물은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엡 17-23)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심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이 신비는 여러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골 1:27)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시험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버림 받은 자들이 아닌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다.”(고후 13:5-6)
아멘! 할렐루야!